

2014 1. 19 연중 제 2 주일

제 1 독서 : 이사야 49,3.5-6 <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제 2 독서 : 코린토 1 서 1,1-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복 음 : 요한 1,29-34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우리는, 지난주일 **주님의 세례축일** 을 보내고 이제 **연중 제 2 주일** 을 맞았습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여 종이라하며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지파로 세운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세상의 빛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일전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신문기자가 “어떻게 인간 김대중이 예수님의 형제가 될수 있느냐?”고 반문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데 ... 우리의 형제라니? 그러나 사실은 그분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품이라든지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자매가 된것 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임을 깊이 느끼며 살고 있는지? 과연 내 자신 그런 신앙고백을 할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적으로 하느님의 가족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에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은총을 받았음에도 안타깝게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 몸과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 딸 이라는 것을 증거 하고 증명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과 귀가 되어 그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즉 우리가 그분의 삶에 동참하며 살아갈 때에야 비로서 그 은총과 영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공동체는 신자라고 등록되어있던 가정이 70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연로하시어 또는 직장 관계로 이주 하신분들이 있었고, 이제는 약 42 가정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진짜 신자로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가정은 28 가정 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어찌보면 이 28 가정은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오늘 복음에서의 요한 세례자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은 바로 우리가 세례때에 받은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충실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사업에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 할 수 있겠습니까? 헐리우드 에 가면 메가폰으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메트로 지하철 역에서도 고래 고래 소리 지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면에서는 이런 복음 선포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자 요한을 살펴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였습니다. 그는 대중 속에서 소리치지 않았습디다. 거리에서 소리치며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는 방법은 고행을 하며 사막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에 이끌려 사람들이 그에게 물려들기 시작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물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린양**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고 고백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일 강론때에 정의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정의를 실천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 정의는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정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정의는 누가 나의 뺨을 때리면, 나도 그의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느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이란 나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헐뜯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우리와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 될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 몸소 실천하신 공정, 정의 인 것입니다. 또한 정의란 내가 형제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웃의 재물을 시기하고 탐낸적은 없는지, 거짓말을 한적은 없는지, 남의 아내나 남편을 부러워 한 적은 없는지, 도둑질? 아마 평생동안 한번정도는 크건 작건 간에 남의 재물에 손을 댄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잘못에 대하여 세상의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시면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질머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지, 무슨 짓을 해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고 . 맞습니다. 그 분은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 분께 용서를 청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세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그들에게서는 죄의 관념, 죄의 의식을 발견할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당당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면서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양심성찰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성찰도 제대로 하지않고 살아가는 그 당당한 삶속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정의, 공정을 실천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가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청할때에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서 우리는 요한 세례자와 같이 증거의 삶을 살아낼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삶은 분리의 삶입니다. 자꾸만 쪼개고 찢어놓습니다. 마귀는 영어로는 Devil 이지만 스페인어로는 Diablo 이고 그 어원은 라틴어의 Diabolus 에서 왔는데 그 뜻은 separate, divide 입니다. 하느님은 죄인들의 잘못을 용서해주시고 **하느님아래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의 생활안에서 내 이웃들의 잘못을 용서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안에 하나를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크나큰 은혜로 그 분의 신적인 가족안에 불림을 받는 영광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 2 독서에서 바오로사도

깨서는 하느님의 교회 코린토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축복의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을 살고있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9,3.5-6

주님께서 3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5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6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시작입니다. 1,1-3

1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와 소스테네스 형제가 2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다른 신자들이 사는 곳이든 우리가 사는 곳이든 어디에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9-34

그때에 29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30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